

2025-3

Policy Trends Briefing

정책동향 브리핑

Global

월간 동향 (3월)



목차 CONTENTS

Global 정책동향 브리핑

1	[미국] 美 원조축소 여파 확산	1
2	[일본] 일본車, 새 공급망 구축	1
3	[EU] EU, 4월부터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	2
4	[EU] EU, 1단계 대미 보복관세 4월 중순으로 연기	2
5	[캐나다] 캐나다, 4월 28일 조기총선 발표	3
6	[일본] 日,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3
7	[미국] 트럼프 관세에 美소비자 기대지수 12년만에 최저	4
8	[EU] EU 대비연합전략 발표	4
9	[미국] 트럼프 외국인 후에 관세 방침 발표	5
10	[일본] 日,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대피계획 책정	5
11	[중국] 중국 드론 택시 세계 최초 상업 운항	6
12	[일본] 日,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 추진	6

美 원조축소 여파 확산 [Link](#)

미국 3월17일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외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사실상 해체 결정
 - 유엔의 최대 기부국이던 미국,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몇몇 유엔 산하 기구에는 탈퇴 통보
 - 대외원조 기관인 USAID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 기관의 원조에 기댄 유엔의 인도적 사업은 직접적인 타격
- ❖ 미국의 기부금에 의존하던 유엔 기구들이 사업 축소에 이어 감원까지 추진
 - 국제이주기구(IOM), 최근 제네바에 있는 본부 인력 1천여 명 가운데 20% 가까이 감원 공지
 - IOM의 재정난은 해외 사업 인력뿐 아니라 제네바 본부 인력마저 감원해야 하는 실정으로 악화된 셈

EU, 4월부터 철강 수입 최대 15% 감축 [Link](#)

EU 3월20일

- ❖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수입량 최대 15%까지 축소
 - EU집행위원회, 철강·금속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4월 1일부터 철강 품목의 수입 쿼터(세이프가드) 축소
 -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대량 몰릴 수 있는 만큼 역내 철강업계 보호
 - 세이프가드 조치는 내년 6월 완전히 종료, EU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도 마련할 계획
- ❖ 지난해 기준 EU 철강 수입국 3위인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개별 국가가 아닌 EU 경제권 기준, 한국에 있어 유럽은 철강 중량과 수출액 모두 1위 시장
 - 국내 철강업계, 이번 EU의 쿼터 축소로 한정된 물량 내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 심화 우려

일본車, 새 공급망 구축 [Link](#)

일본 3월17일

- ❖ 미국 관세 인상 추진에, 일본 자동차 업계도 공급망 협력
 -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천951억 엔(약 207조 원)이었고, 그중 자동차가 6조261억 엔(약 59조 원)으로 전체의 28.3% 차지
 - 트럼프 정권의 관세 리스크가 경영에 영향, 일본 자동차 업체 연계로 새로운 공급망 구축 추진
- ❖ 혼다, 하이브리드차(HEV) 배터리를 도요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조달 결정
 -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혼다, 도요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세운 공장에서 40만 대분의 배터리 구매 방침
 -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가 부과되면 연간 7천억 엔(약 6조8천억 원) 규모의 영향 예상
 - 캐나다, 멕시코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 관련 공급망을 재구축해 영향 축소 계획

EU, 1단계 대미 보복관세 4월 중순으로 연기 [Link](#)

EU 3월20일

- ❖ EU, 당초 대미 관세 1일과 15일 두 단계 걸쳐 발효 예정
 - (4월 1일) 미국산 배(boat)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80억 유로(약 13조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 (4월 15일)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해 농축산물 등 180억 유로(약 28조 원) 규모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 ❖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 시간 확보 위해 관세 부과 연기
 - 미국과 공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거두지 못한 상황
 - 미국의 우선순위는 투자 유치와 산업 재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

캐나다, 4월 28일 조기총선 발표 [Link](#)

캐나다 3월23일

- ❖ **트럼프 공격에 자유당 지지 상승세**
 -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 연방의회 해산을 요청한 후 4월 28일에 총선 실시 일정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자신과 자유당을 지지해 줄 것 호소
 - 최저 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자고 제안, 폴리에브 대표도 세금 감면과 자원 생산 증가 등의 정책 강조
- ❖ **4,0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2%, 보수당은 37%의 지지 획득**
 - 야당인 보수당, 당초 트럼프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으나, 트럼프의 관세와 51번째 주 등의 발언 후 정통으로 타격

트럼프 관세에 美소비자 기대지수 12년만에 최저 [Link](#)

미국 3월25일

- ❖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급격히 악화**
 - 3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2.9(1985년=100 기준)로 2월(100.1) 대비 7.2포인트 하락
 - 지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93.5)도 밑도는 상황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소비자 신뢰 악화에 영향
- ❖ **기대지수 80선 미만 하락 시 통상 경기침체 위험 신호로 판단**
 - 기대지수는 지난 2월 80선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
 - 지난 몇개월 간 강하게 유지되어 왔던 미래 소득에 낙관론 대부분 증발, 이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의 개인 상황에 대한 평가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음을 시사

日,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Link](#)

일본 3월24일

- ❖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 공식 출범**
 - 일본 방위성 약 240명 규모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통합작전사령관은 방위상의 명령에 따라 각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
 - (목적) 유사시와 대규모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
 - (목표) 우주·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부대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통합 운용해 역지력 강화
- ❖ **미국,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 신설 계획**
 -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한 부대 운용이 가능해지고, 미군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EU 대비연합전략 발표 [Link](#)

EU 3월26일

- ❖ **다양한 상황의 위기 대비 위한 범유럽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
 - 첫 '안보 집행위원단 회의'를 열고 '위기대비 연합 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 채택
 -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이버·하이브리드 공격, 재난재해 등 광범위한 위기에 대한 통합적이며 체계적 대비 목표
- ❖ **범유럽 차원의 방위태세 강화 로드맵 '대비태세 2030'의 연장선으로 EU 차원에서 처음 수립**
 - 병원·학교·교통·통신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위험 예측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과 같은 핵심 물자 비축·관리 추진
 - 회원국별로 분산된 위기 대응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EU 위기대응 허브' 신설
 - 민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EU 전역에 걸친 정기적 대비 훈련 추진

트럼프 외국산 車에 관세 방침 발표 [Link](#)

미국 3월27일

- ❖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 상호관세와 관련해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
 -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자동차보다 한 달 뒤인 5월 3일 이전에 적용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부품에는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완성차 관세도 면제되는지는 불분명
- ❖ 자동차가 한국의 對미 수출 1위 품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 예상
 - 이번 관세 부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약 187조 원) 중 품목별 비중 1위(27%)를 차지한 자동차(51조 원) 산업에 직격탄 예상
 - 2024년 현대차·기아, 한국GM의 對미 수출 대수가 140여만 대인 점 감안, 현대차·기아의 현지 생산능력 확대(올해 30만 대 증가) 전략에도 110여만 대의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영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

중국 드론 택시 세계 최초 상업 운항 [Link](#)

중국 3월31일

- ❖ 이항홀딩스, 헤이항공 허가
 - 중국민용항공총국, 광둥성 이항홀딩스와 안후이성 허페이 헤이항공 2곳에 자율 여객 드론에 대한 운항인증서(OC) 발급
 -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승인된 공역에서 상업적 운항을 수행하고 유료 여객 서비스 제공 가능
- ❖ 지역 내 공원과 같은 장소에서 상업 여객 서비스 본격 시작
 - 이항홀딩스, 차량 공유서비스 예약처럼 '저고도' 항공편 예약 가능
 - 상업 운영 지역을 계속 넓혀 광저우 여러 지역에 저고도 운송 허브를 구축하고 관광, 상업용 여객 서비스 제공 계획

日,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대피계획 책정 [Link](#)

일본·대만 3월27일

- ❖ 대만 가까운 섬 주민·관광객, 여객기 등으로 수송
 - 대만 유사시,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지마를 비롯해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등 사키시마 제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 11만 명과 관광객 1만 명을 규슈로 수송할 방침
 - 주민과 관광객 다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해 후쿠오카 공항이나 가고시마 공항으로 이동, 해상보안청과 민간 선박도 대피에 활용
- ❖ 주민 피난 생활시설 8개 광역지자체에 마련
 - 후쿠오카현에 가장 많은 4만7천400명이 체류하고, 가고시마현·구마모토현·야마구치현에는 각각 1만3천 명 안팎이 머물 예정
 -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점점 엄중해지는 동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피난 체제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4월 이후 계획 구체화

日,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규제 추진 [Link](#)

일본 3월31일

- ❖ 일본정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
 -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일본에서 결제 수단으로 취급돼 자금결제법의 규제
 - 일본 금융청, 2026년 가상자산에 대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 신설 방침
 - 가상화폐가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 다만,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과는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규정될 전망
- ❖ 과세 방식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 투자 환경에 큰 변화 예상
 - 2025년도 여당 세제 개편 대강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금융소득과세(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계획
 - 2026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소득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할 계획

Global 정책동향 브리핑

발행처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

발행인 센터장 정용일

참여연구진 전문위원 문지영

전문연구원 이민주

전문연구원 황윤성

전문연구원 강민제

주소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52

홈페이지 www.cpdcenter.re.kr

Global 정책동향 브리핑
